

# 社會福祉에 대한 국민의식의 문제점 고찰

文 仁 淑

(이화여대 교수)

〈 차 례 〉

- |                |                    |
|----------------|--------------------|
| I. 序           | IV. 韓國人の 복지의식      |
| II. 國民의식의 개념   | 1. 社會發展과 生活만족      |
| III. 韓國人の 國民의식 | 2. 社會福祉事業과 사회복지전문직 |
| 1. 價値觀의 變化와 혼란 | 3. 사회문제에 대한 責任     |
| 2. 責任의식과 무규범성  | 4. 자원봉사 활동         |
| 3. 共同體의식과 참여정신 | V. 結 論             |

## I. 序

社會福祉가 人間의 “人間다운 삶”과 關聯이 있고 社會가 “人間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連帶責任과 關聯이 있다고 前提한다면, 그것은 한 나라나 社會의 구성원들의 生活哲學과 그들이 지니는 價値, 그리고 그들의 意識구조와 根本的인 關係性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近來에 와서 급격한 社會的 變동을 겪음으로써 주변 生活환경에 큰 變化를 招來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自然스럽게 받아들이고 日常生活에서 큰 無理없이 行動의 지표로 삼아왔던 傳統的 價値와 哲學에도 많은 자극을 받게 되었음이 事實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國民意識의 측면에서 過度期的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空白期·등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의 國民意識에는 整理되어야 할 여러 부분과 側面이 있음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國民意識을 정의해 보고,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우리 國民意識에서 제시되는 主要문제들을 先行연구들을 기초자료로 삼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國民意識의 概念

國民意識은 한 個體의 人間이 그 自身이 속하고 있는 國家社會의 한 構成員임을 지각하는, 다시 말해서 共同體社會의 한 成員임을 自覺하는 精神的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國民意識은 個人이 소속하고 있고, 영향받고 주며 成長하는 共同體의 生活환경 속에서 서서히 形成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政治社會化 과정을 통해 規範과 가치관 및 行動양식이 內面化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國民意識의 意味영역에는 市民意識 내지는 市民精神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生覺할 수 있다.”

國民意識 또는 國民精神이라 함은 첫째로는 國民의 自主的인 主體의식을 말하게 된다. 이는 한 國家의 歷史와 社會發展이 그 社會의 지배계층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國民들 스스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自覺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國民들이 이러한 主體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自主的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自主的이고 精確한 判斷력의 結여는 主體의식의 약화를 초래하게 하며, 自發的이고 창의적인 參與를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둘째 國民意識은 비판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비로소 發達하게 된다. 이것은 市民共同體 形成에 방해되는 非合理性을 가려낼 수 있는 비판력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파생되는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나 個人이나 내 가족에게는 直接的인 영향이 없다하더라도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며 社會구성원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告發하는 의식의 必要性을 말한다. 비판의식 없이는 社會에의 진정한 參與의식도 結여되는데, 이것은 문제의식의 結여로 문제 自體를 파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문제의 解決案이나 대안을 구상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國民意識은 共同體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당면과제에 처했을 때, 국가 내지는 社會의 構成員中, 누구 하나의 個人이나 一部の 문제만이 아닌 國民全體가 당면하는 문제로 승화되어야 하며, 全體의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로 合意되고 解決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均집된 集團의식이 아닌 共同體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國民意識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국가사회 構成員으로서 갖게 되는 國民意識은 個別的인 關心에서, 社會의 合意에 단순히 參與하는 個人主義에서 벗어나 責任과 義務, 正義와 질서가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社會는 거기에 속한 構成員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主人意識을 갖고 그가 소속한 社會와 國家에 적극적인 參與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韓國社會의 國民意識은 現在 어느 位置에 있으며,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 韓國人이 추구하는 價値의 상황, 規範의식, 공동체의식 및 우리나라 복지국가 건설에 기본이 되는 先進國의 개념과 복지 의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韓國人의 國民意識

現代 韓國의 市民社會는 의식을 기반으로 자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社會의 制度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경향이 짙기 때문에, 市民社會의 理想인 自由, 平等 등의 가치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 우리 民族의 生活속에 용해된 것은 아니라고 일단 生覺해 볼 수 있다. 따라서 國民들의 日常生活과는 유리되어 구호로서만 主張되거나, 政治的 문제와 결부되어 市民生活속에 용해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政治的 이데올로기로서 主張되는 경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韓國 國民의 의식구조에는 그 동안 많은 變化가 있었다. 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物量위주의 近代化로 인한 社會구조의 변동과 의식구조의 변동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國民의 의식구조라는 側面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 1. 價値觀의 變化와 혼란

産業化에 따른 社會변천은 價値觀의 變化와 혼란을 동시에 가져옴으로서 우리 國民은 불신감과 소외의식 그리고 무규범성 등과 같은 의식상의 문제를 지니기에 이르렀다. 이中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中의 하나는 서로 상충되는 社會的 價値를 同時에 추구하는데서 생겨나는 價値觀의 혼란이다. 産業化 過程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가치는 個人主義, 즉 個人의 권위와 個人의 自主性을 重要視하는 가치라고 보겠다. 反面 우리 國民은 우리 社會가 오랫동안 지녔던 傳統的인 家族主義, 연고주의 등의 의식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이 두 가지 상충된 가치관 속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돈의 현상은 現代社會研究所가 1981년 7-8월, 198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全國 人口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잘 드러나 있다.

〈표1〉, 〈표2〉에서 보듯이 “부잣집 子女나 가난한 집 子女나 우리 나라에서 똑같이 공부할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여(1981년 98%, 1982년 95%), 個人의 복지에 대한 社會와 國家의 責任을 요구하면서도 가난의 책임은 가난한 사람 각자 個人이 져야한다”라고 하여(1981년 79%, 1982년 82%) 個人的 責任을 추궁하는 성향을 나타내기도 함으로써 상충된 의식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는 産業社會化에 따른 個人主義의 思想의 확대현상을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직접적으

〈표 1〉 부잣집 자녀나 가난한 집 자녀나 다 똑같이 공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 도 별	1981	1982
그 령 다	98	95
그렇지 않다	1	3
모 르 겠 다	1	2
합 계	100 (1, 221)	100 (1, 197)

〈표 2〉 가난의 책임을 각자 개인이 져야 한다.⁽⁵⁾

연 도 별	1981	1982
그 령 다	80	82
그렇지 않다	20	18
모 르 겠 다	0	0
합 계	100 (1, 205)	100 (1, 198)

로 마찰을 일으키는 경향으로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 全國人口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韓國人의 복지의식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老人의 부양의무를 가족이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33.3%를 차지함으로써 정부의 15.3%나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 28.2%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⁶⁾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사회에서 제시되는 일련의 老人문제들은 앞에 나타난 一般的 價値와는 다른 樣相을 보여줌으로서, 실제 행동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傳統的 大家族制度가 핵가족으로 변하는 경향이며, 個人主義的 성향이 증대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이 責任지던 老人의 부양의무가 점차적으로 소홀해져 가는 사회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 2. 責任의식과 무규범성

健全한 國民의식은 共同體의 한 成員으로서의 責任의식과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國民의식과 관련하여 행해진 많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는 近來에 겪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무규범성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國民의식 속에 반영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價値가 人間이 추구하는 삶의 原理나 生의 目的이라고 한다면, 사회규범은 이러한 가치

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合法性 내지는 正當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手段이나 方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우리 國民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中的 하나가 정의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사회 추구에도 불구하고, 正直하고 誠實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正義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적 現實이며, 이런 상태에서는 「아노미」, 즉 무규범성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서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는 사회의 공동체 成員으로서의 질서의식을 期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中的 하나는 共同體 生活의 준거가 되는 價値기준과 社會倫理가 혼돈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보고 싶다. 이런 현상은 表面的으로 드러나 추구되는 價値와 實際로 또는 實踐적으로 추구되는 價値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 구체적인 예로 韓國人의 사회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國民의 다수가 “우리 나라에서는 연줄이나 배경이 있어야 출세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조사 대상자中 1981년에는 71%이었으며, 1982년에는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 “우리 사회는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정도가 찬성하고 있어 그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권력있는 사람은 법을 어기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사대상자의 5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도 우리 사회에 전도된 의식구조가 통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우리 國民의 의식구조가 지니는 무규범성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질서와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을 저해하는 하나의 큰 要因이 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 3. 共同體意識과 참여정신

産業사회와 市民社會로 전환해 가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녀왔던 傳統的인 특수주의, 가족주의 등은 韓國人이 共同體의식과 시민의식을 의식화하고 내면화 하는데 방해가 되는 한 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자신의 世界로 共同體의 한계를 가족이나 친족 등과 같이 個人이 소속된 특수집단에 한정시키는 영향이 있으며, 시민공동체를 單位로 이루어지는 共同體의식을 形成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1)</sup>

近代 民主社會에서는 共同體의식이 꼭 必要하다는 立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특수주의, 가족주의 등으로 인한 공동체의식의 不在는 그 自體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共

同體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市民들이 사회에 대한 主人意識이나 참여의식이 形成되는 까닭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의식의 不在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지표는 김동인씨가 제시한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다.

〈표 3〉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sup>12)</sup>

연 도 별	1981	1982
그 령 다.	68	55
그렇지 않다.	27	36
모 르 겠 다.	5	9
합 계	100 (1, 221)	100 (1, 198)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生覺하는 사람은 1981년에는 68%이고, 1982년에는 55%를 차지함으로써 1982년도의 비율이 그 전년도 보다는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81년과 1982년 모두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결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政治를 그들 自身の 삶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個人主義的 思考에서 나왔거나, 또는 그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 해도 참여의 적절한 길이나 方法이 없다고 보고 있거나, 혹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效果가 없다는 生覺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 國民의 일반적인 참여의식과 태도는 政治 以外の 사회의식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共同體의식을 성숙시키는데 저해가 되는 또 다른 要素는 지역, 계층간에 소재해 있는 不平等구조의 심화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국민의 다수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分配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간의 不平等이 存在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0.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또 빈부간 不平等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87.1%를<sup>13)</sup> 차지함으로써 응답자의 대다수가 不平等구조의 심화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소득分配의 不公正과 불균형으로 나타난 富의 偏在가 상대적으로 빈곤의식을 조장하게 되었고, 이는 또 사회적 불평등의식과 계층간의 계급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식은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키고 共同體의식 구성을 저하시키는 要素가

되고 있다.

共同體의식과 공동체 참여도의 구체적인 또 하나의 지표는 복지사업을 위한 모금운동에 국민이 얼마나 또는 어떠한 方法으로 참여했는가로 제시될 수 있다. 공동모금운동은 적은 규모의 재분배 효과를 초래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연대의식을 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모금운동은 통계적으로는 그 成果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中 市民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모금활동은 赤十字社회비, 이웃돕기운동으로서 각각 조사 대상자의 88.3%와 74.3%<sup>14)</sup>가 모금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금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금운동에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느냐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모금운동에의 자발적 참여여부에 대한 의문의 근거는 반상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금이 가장 큰 效果를 보았다는 조사결과와, 모금된 資源들이 어디에 어떻게 使用되는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sup>15)</sup> 점들에 기인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모금운동에의 참여는 國民들의 自發的인 사회참여 의식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강제성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민간적 차원에서나 自發的 차원에서의 참여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김영모 교수는 민간 차원에서의 공동모금 참여율을 10%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강제적 참여요구로 인해 우리 國民들은 共同體에 대한 自意的 공헌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경험하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자발적 참여의식의 成長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와 풍토를 조성하는데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V. 韓國人의 福祉意識

福祉國家는 政府가 자선적 차원이 아닌 政治的 권력으로서 모든 市民에게 소득, 영양, 보건, 주택, 교육등의 最低수준을 保障해 주는 것이다.<sup>16)</sup> 現代社會가 이와 같은 福祉國家를 기본가치로 추구하게 되면서 基本욕구에 대한 國家의 責任, 즉 國家가 각 個人이 福祉를 責任적야 한다는 福祉意識이 발달 되어 왔다. 人間生活의 기본권이 보장된 會社속에서 비로소 共同體 成員으로서의 連帶感과 市民으로서의 責任感도 成就된다고 본다면, 健全한 복지 의식의 증가는 건전한 國民의식을 고양시키는데도 매우 重要하다고 生覺한다.

##### 1. 사회발전과 생활만족

韓國은 近代化 과정속에서, 先進國家나 先進社會의 비열에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目標로 막대한 努力을 하고 있으며, 많은 國民들이 그 結果를 바라보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아 왔다. 특히 제 5 公화국은 福祉社會건설을 4대 國政지표의 하나로 淸명한 후 先進國적 國家發展을 도모해 왔다.

先進國 내지는 先進社會라고 말할 때, 一般的으로 그 의미는 政治, 經濟, 會社, 文化, 教育, 기술등의 여러 分野에서 앞서가는 현상을 뜻하는 복합적 內容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先進性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經濟性, 生産性, 기술혁명 등의 제한된 차원<sup>1)</sup>에서 그 개념이 이해되고 있으며, 先進社會의 實現을 그와 같은 기준의 테두리내에서 성취하려고 하고 있다. 先進社會가 人間의 生活의 質的向上을 의미하고 따라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을 말한다면, 그것은 人間의 生活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基本的 要素들과 生活여건이 포함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이는 바로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권리”를 추구하고 實現하는 헌법 제 32 조가 명시하는 바를 추구하는 길이며 方法이라고도 生覺할 수 있다.

그러한 關點에서 보면 先進國家와 복지사회와의 개념사이에 根本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나라가 취해온 先進國 達成의 方向은 경제 위주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경제적 풍요”가 바로 “잘 사는 것”과 결부되는 國民들의 의식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國民들의 의식은 國民들 스스로가 느끼는 幸福感이나 生活의 만족감 조사 結果가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國民들의 幸福度 조사에 따르면 우리 國民들의 幸福度는 社會계층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上上層의 경우 不幸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幸福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全體에 78.8%이며, 上下層의 경우는 不幸한 사람이 5.7%인데 비해 幸福한 사람은 6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반면 下上層에 속하는 사람들 中에는 幸福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下上層 응답자 全體의 10.8%이며, 不幸한 사람은 33.1%를 차지하며,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度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幸福度의 차이는 지역별로도 나타나는데, 서울시내의 조사 대상자 中 36.0%가 행복하다고 표현한데 비해 농촌 응답자 中에는 18.9%만<sup>1)</sup>이 幸福하다고 함으로서 生活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農村보다 都市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를 우리의 삶의 만족은 경제성과 關連시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經濟위주의 社會발전과 經濟的 成功을 위주로 경험하는 國民들의 만족은 우



리 사회로 하여금 金錢萬能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경쟁하여 사치를 추구하는 현상들로 나타난다.

## 2. 사회복지사업과 社會福祉 專門職

現代 産業化된 사회에서는 社會福祉事業分野의 역할의 必要性이 확대되며, 福祉分野의 業務를 담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복지사업 전문가들이 요구되게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社會發展에 必要한 福祉分野의 발전과 이 分野에서 기능적 活動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의 확립은 우리 사회가 갖는 社會的 必要와도 關聯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國民들이 사회복지 전문分野에 대한 인식과 의식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이는 우리 國民이 사회복지사업의 영역과 그 한계를 어떤 범주에서 보고 있고, 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社會發展에 어떤 역할과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사업가의 사회적 서어비스 자원을 活用할 수 있는 한계가 지어지며, 그 테두리 속에서 사회사업가에 대한 사회적 裁可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論理에 근거해 볼 때, 우리나라 社會福祉事業과 專門職에 대해서 일반적인 國民들의 의식과 사회복지 전문분야 종사자들이나 전문가간의 의견사이에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고 간주되며, 이런 인식면의 차이 그 自體가 바로 전반적 복지의식과 關聯되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一般的으로 韓國人의 의식에는 사회복지사업을 慈善 및 博愛事業, 救護事業, 및 施設保護事業<sup>1)</sup> 등으로 봄으로서 구제와 보호적 영역에 국한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일반 國民은 사회복지分野를 전문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結論이 내려진다. 이러한 사회복지事業에 대한 인식경향과 의식구조의 形成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사회사업”이라는 用語와 關係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사업”이라는 用語는 자선적, 박애적이며, 福祉分野 전문직 종사자들의 業務수행이 전문적 知識이나 기술에 土臺를 두고 이루어지기 보다는 “좋은 일”을 하는 “동기” 위주로 봉사하는 개념으로 처리되었는데에 그 큰 요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近代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不足과 사회복지사업 전문직을 理解하지 못하는 데서 전통적 개념과 의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國民들의 복지事業에 대한 의식은 8. 15 해방후와 6. 25 동란의 경험 속에서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戰亂이라는 國家적 긴급 상황에서 구제사업 프로그램은 팽창되고 여러 종류의 보호시설이 量的으로 막대한 증가를 보였는데, 國民들은 이러한 사회경험 속에서 사회복지事業에 대한 인식과 사회사업 전문직에 대한 見解를 구성하게 되

었다.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가졌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社會福祉事業과 사회사업가에 대한 전통적 자선 구호위주의 개념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식은 사회복지分野와 복지分野 종사자들에 대한 專門性의 인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 사업을 자선적 차원에서 보고 그 전문성의 인정의 결여는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비용의 지불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는 우리 나라 정부의 사회복지 政策의 側面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의 수여가 最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現實化되었다는 事實이나, 사회복지 시설이나 서비스 기관들의 유료 서비스공급제도에 저항을 보이고 무료 서비스를 강조하는 점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社會福祉事業에 대한 이와 같은 의식과 개념이, 변천하는 사회에 대두되는 복지측면의 제반문제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豫防的으로 또는 치료적 方案을 모색하고 전문직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하려는 사회복지分野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문제가 된다. 왜곡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식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分野와 전문人力의 活用을 둔화시킨다. 그 뿐 아니라 사회복지分野 종사자들의 活動영역을 극도로 제한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事業 전문직에 주어지는 사회적 裁可의 범주가 국한됨으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位置가 애매해진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位置의 애매성은 一部에서 活動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기에도 문제를 제시한다.

### 3.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國民의 복지의식이 어느 정도 발달하였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복지지표의 하나는 責任의식이다. 사회적 責任의식은 共同體의식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웃의 아픔을 보고 동참하고자하는 참여의식이며, 또 나아가서는 사회적 “잘못”에 대하여 바로 되도록 하는 努力에 한 뜻을 하겠다는 사회적 良心이다.

한국 국민들의 복지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國民의 福祉의식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결론은 國民의 사회적 책임의식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복지권에 있어서 個人責任을 주장하는 응답자의 수가 全體의 35.1%를 차지하고, 정부나 사회 책임은 27.6%, 개인과 정부, 사회가 함께 責任을 져야한다는 사람이 28.6%로 나타났다. 또 빈곤의 責任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質門에서는 個人責任을 주장하는 경우가 5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업의 경우에도 개인 責任이 34.1%, 정부나 사회의 責任은 31.4%로 개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老人부양에 대해서도 가족 責任으로 보는 사람은 응답자의 40.9

%이고, 정부, 사회의 책임이 33.3%로서 사회의 責任보다 가족의 責任을 앞세우고 있다.<sup>20</sup>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는 아직도 福祉的 側面에서 공적 責任보다는 私的 責任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政治的 이데올로기화 되었을 뿐, 國民의 복지권이 정착되지 못하고, 國民의식구조 속에서도 스스로의 권리로 의식화되지 못한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 國民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 사회적 責任보다는 개인적 責任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한데, 불우아동이나, 고아, 수재민 등의 責任에 대해서는 사회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지적할 만하다. 불우아동을 보호할 責任이 누구에게 있다고 生覺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7%가 이웃 또는 사회에 있다고 生覺하고, 31.9%가 정부에 있다는 대답이고, 가족 또는 친척에게 있다고 14.3%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재민에 대해서는 52.3%, 고아에 대해서는 30.7%가 이웃의 사회적 責任을 주장하고 있다.<sup>21</sup> 이런 의식의 표현은 우리 國民들이 사회문제를 미시적 면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런 범주 속에서는 연대적 責任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責任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언어화되어 表面的으로 나타난 사회가치로서, 이것이 內面化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앞에서 논인한 바 있는 모금운동 실패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한된 상황에서나마 사회문제의 責任을 이웃, 사회가 져야한다고 말하면서도 모금운동에의 참여는 그것이 정부 주도적이나 강제성을 띄었을 때 주로 이루어지고 자발적 형식으로는 참여가 부진하다는 事實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韓國民의 의식구조 속에는 言語로 표현되는 의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식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되며 이것이 바로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싶다.

#### 4. 자원봉사 활동

社會發展과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보수를 지급받고 業務수행하는 專門家들의 활동이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이 현대 사회의 현상이다. 그러나 專門人力의 不足, 사회의 경제적 자원의 결핍 및 복지必要의 증대와 같은 要因에 의해, 이러한 주축제 역할과 더불어 보충적이고 보조적 역할을 해낼 사람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자원봉사 活動은 구미에서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

으며,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조직적 활동을 하여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活動이 Y같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대규모화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은 最近에 와서 일이다. 즉 70년대 후반기에서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으며, 이에 必要한 교육과 훈련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배치에 대한 조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불런티어리즘(Volunteerism)이라는 用語가 흔히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보아도, 자원봉사활동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外來的 운동의 의미와 철학적 기반을 충분히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회운동을 한국 文化와 社會에 적절한 活動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수정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中 가장 基本的이며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이해가 不充分하다는 점이다. 자원봉사 活動은 “女子의 일”이라든가 “시간이 남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식으로 一般的인 의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들이 “有體人力”과 “女性人力”活用을 강조하는데서 제시된다. 자원봉사 活動은 범國民的 차원에서 각자가 지닌 재능을 이웃을 위해 바침으로서 사회복지 向上에 기여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편견적 인식은 운동자체의 基本精神에 어긋나는 것이다.

生産과 經濟性에 큰 가치가 부여되며, 男性들이 우위적 처우를 받는 경향이 짙은 우리 사회적 現實에서, 女性有體人力(82.4%)<sup>23)</sup>을 위주로 자원봉사 활동에 活用하는 方案은 잘못된 우리 國民들의 일반적 인식과 의식을 수정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가 없다.

自願奉仕活動의 “무보수성”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런 의식구조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에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外國에서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專門人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 反面,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수준의 참여자가 59.2%로 全體活動하는 사람의 過半수를 훨씬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 수준은 그에 5분의 1도 못되는 11.1%<sup>24)</sup>를 차지하여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졸정도면, 일을 원하는 경우 보상을 받는 취업을 선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思考가 一般的이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 活動이 市民으로서의 참여의식 개발에 따르는 사회봉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자원봉사 活動의식이 불투명함은 이러한 活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活動 期間이 短期的이라는 점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표 4〉 자원봉사 활동기간<sup>24)</sup>

구 분	실 수	%
1-6 개월	47	43.5
6-12 "	20	18.5
1-2 년	15	13.9
2-3 년	11	16.2
3년이상	13	12.0
무 응 답	2	1.9
계	108	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응답자 中 1개월에서 6개월간 活動한 사람은 4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이 6개월에서 1년 以内로 18.5%를 차지함으로써 1년 以内に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한 사람은 조사 대상자 全體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은경의 석사論文에서는 1년 이내에 活動을 중단하는 사람이 44.8%에 이므로써 前者보다는 약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결과 역시 거의 過半數에 가까운 相當히 높은 비율이다. 이는 自願奉仕活動을 “사회”를 위한 活動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봉사하는 自身の “지식과 경험획득”(37.9%)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보는, 자기욕구 위주의 생각에서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위주의 자원봉사활동의식은 클라이언트와의 關係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가망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以外の 業務수행에도 質的인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의식구조와 태도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어비스의 質的向上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sup>25)</sup>

## V. 結 論

國民의식은 自主的 主體의식을 기반으로 다져진 한 개체의 국가사회에 대한 共同體의식이라고 볼 때, 우리 國民의 의식은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돈 속에서 성숙되지 못한

면들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政治, 經濟, 사회 모든 分野에서 급격한 變化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가치관의 혼란, 무규범성, 共同體의식의 解體, 기타 구조적 결함과 정책이 빚어낸 허구성으로 인하여 복지의 미성숙 등을 초래하였다.

이제 歷史的, 體系的 관점에서 보다 성숙한 國民의식과 복지의식을 形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삶의 구체성의 보장이다. 國家共同體의 구성원은 自身이 속한 共同體에 구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 귀속감을 갖게 되며, 구성원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보장받기 원한다.<sup>26)</sup>

둘째, 정의사회가 구조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정의를 實現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편법주의, 무규범성이 만연하게 되어, 共同體 成員으로서의 責任의식이나 질서의식 등은 소멸되기 쉽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분배정의를 實現되어야 한다. 이것이 實現되어야 現在의 계층간, 지역간의 심각한 계급의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셋째, 國民의식의 形成은 충실한 社會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自律的인 의식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이 必要하다. 만약 自立的, 主體的 의식의 함양이 人性形成 과정에서 이루어 지지 못하면 초기 사회화 과정 속의 원자적 결과인 이기성이 규제받지 못한 채 社會生活로 전이된다.<sup>27)</sup>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의 성취만이 아닌, 社會全體와 國家共同體의 연관 속에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관점을 形成시키는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며, 사회적 良心(Social Consciousness)의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國民의식의 形成을 위해서 自律권이 國民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國民의식은 단결적이고 단시간에 큰 효과를 보려는 實績위주의 집단화운동에 의해 實現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정의롭고 公정한 사회구조와 體系 속에서 自律的으로 습득되어, 각 사회구성원들에게 內面化되고 의식화되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國民의 복지의식이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는 때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부분적으로나마 責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國民들의 복지의식의 성숙과 변화는 부분적으로 市民교육의 실시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전문적 역할 수행과 관련되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 國民들의 사회복지의식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分野 自體내에서도 각성이 요구된다.

\*\*\* 註 \*\*\*

- 1) 박순영, “국민의식의 형성과정과 저해요인,” 「현대사회」, 2. 2 (1982. 7), pp. 89-90.
- 2) 박순영 “시민사회, 시민의식,” 「월간조선」 (서울: 조선일보사, 1982. 1), pp. 92-99.
- 3) 유근호, “개인의식과 공동체의식: 현대사회와 시민의식,” 「광장」, 122. (1983. 10), pp. 135.
- 4) 김동일, “한국인, 사회의식 바뀌고 있다,” 「정경문화」, 215 (1983. 1), p. 237.
- 5) 김동일, “국민의식의 변화연구,” 「현대사회」 (1982. 겨울), p. 113.
- 6) 上揭論文, p. 238.
- 7) 김영모, 「한국인의 복지의식」 (1980), p. 34.
- 8) 김동일, “국민의식의 변화연구,” (1982. 겨울)
- 9) 上揭論文, 123.
- 10) 이영호, 「국민의식구조 연구」 (서울: 사회정화위원회), pp. 183-184.
- 11) 박희섭, “한국인의 의식과 사회발전,” 「현대사회」 (1982. 겨울), p. 66.
- 12) 김동일, (1982), p. 111.
- 13) 김영모, (1980), p. 60.
- 14) 上揭書, p. 166.
- 15) 上揭書, p. 167.
- 16) Harold h. Wilensky, “The Problems and Prospects of the Welfare State,”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 U. Free Pres, 1965), p. 9.
- 17) 박종삼, “先進社會福祉와 사회사업가의 役割,” 전국사회사업가 대회」, (1984), p. 15-16.
- 18) 上揭論文, p. 11.
- 19) 上揭論文, p. 120.
- 20) 김영모, 前揭書, pp. 33-34.
- 21) 上揭書, p. 127.
- 22) 김범주, “자원봉사자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1982. 여름), p. 143.
- 23) 上揭論文, p. 143.

24) 上掲論文, p. 145.

25) 문인숙, “자원봉사의 理論과 實際, 「자원봉사」” (한국여성 개발원 1984) (미간행)

26) 박순영, (1982. 1), p. 95.

27) 上掲論文, p. 95.